

더불어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보도자료**

| 본부장 윤후덕·인태연 | 수석부본부장 민병덕·박용갑

□□보도 일시	2025. 5. 29. (목)	배포일시	즉시 배포
사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원국 02-6788-3631	문의	윤후덕의원실 강지영 비서관 02-6788-6904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세종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세종 소상공인 “尹 계엄으로 소상공인 큰 타격, 획기적인 지원 필요”
- 황현목 “세종 소상공인 최악의 상황, PPP 등 선진국 정책 도입 필요”
- 강준현 “대통령 제1집무실-국회의사당 이전 정상 추진 중”
- 박용갑 “작년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민생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박용갑 수석부본부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시당에서 세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 소상공인들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통령 제1집무실 및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 ▲미국의 PPP와 같은 획기적인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추진, ▲금리 인하,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확대,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소상공인 복지 지원제도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상점가 지원 확대, ▲지역 신용보증기금 대출 한도 상향 및 금리·보증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목 세종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세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대출 원금과 이자, 인건비,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폐업의 길, 신용불량자의 길로 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PPP 등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말로만 선진국이 아닌, 진짜 선진국의 정책과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A씨는 “작년 윤석열의 계엄 이후 공무원의 연말 송년회와 회식을 금지시키면서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세종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함께 역외 소비를 줄이고, 세종시 내 소비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시당 위원장은 “오늘 세종 소상공인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제1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모두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도 반영되는 등 잘 추진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민생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수석본부장은 “상공인들은 코로나를 버티기 위해 대출한 9조 원 중 남은 4조 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2024년에만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세종 소상공인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자료 : 간담회 사진



